



## 여성의 입덧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김 애 경<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입덧(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NVP)은 임신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며 구토를 동반하든 안하든 오심이나 구역질을 경험하는 여성은 전체 임신여성의 70-90%에 달한다(Cowan, 1996). 입덧 증상의 심각성은 오심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에서부터 경한 오심을 경험하는 여성, 잦은 구토를 동반하는 여성까지 다양하다.

입덧의 원인은 임신초기의 융모생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의 증가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경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신 1기말에 대부분 해소되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Strong, 2001).

임신중의 여성의 입덧 문제는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에 다양한 강도로 영향을 미친다(O'Brien, Evans & White-McDonald, 2002). 심한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 지연된 입덧을 임신 오조증이라 하며 체중의 5%이상 감소, 전해질 불균형, 케톤산증, 탈수가 나타난 경우 입원이 권고 되어진다(Cowan, 1996).

입덧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는 임신부의 심리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대인관계장애, 직업의 위축,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Mazzota, Magee & Koren, 1997).

임신 기간동안 여성은 심하고 꾸준한 오심과 관련증상을 경험하며 이는 여성을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하며 자신의 입

덧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여성은 입덧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세계에 고립시키기도 한다(O'Brien et al., 2002).

현재 임신 중 경험하는 입덧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의학 분야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입덧 환자의 간호도 정서적인 지지보다도 영양학적 치료나 약물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ikins-Murphy, 1998).

입덧으로 인한 심한 오심과 구토에 관련된 요소는 복잡하며 입덧은 여성을 압도시킨다. 그러므로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을 돕는 간호로는 증상에 대한 치료보다는 오심과 구토, 구역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소시키는 중재가 더 효과적이다(Cowan, 1996).

그러나 이와 같이 임신으로 인한 오심, 구토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이 제시되지만 많은 여성은 오히려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입덧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하며 개인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입덧에 대처하고 있다(Mazzota et al., 1997).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다양하며 임신으로 인한 오심, 구토, 구역질은 개인에게 있어서 통합되어진 경험이다(Lenz, Pugh, Milligan, Gift & Suffe 1997). 이처럼 여성의 입덧 경험은 처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다르게 지각 될 수 있고 대처행위는 여성에 따라 다양하며 독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의 입덧에 대한 의미와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여성의 입덧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주요어 : 여성, 입덧

\* 200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

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투고일: 2003년 4월 8일 심사완료일: 2003년 10월 4일

근거이론은 현상의 의미,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에서 질서를 가지고 생활하며 실제 세계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개인이 실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의 본질을 파악하여 개념화 하는 것은 집단내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게 한다(Blumer, 1969).

이처럼 근거이론은 인간경험의 본질, 현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능동적 역할, 변화와 과정, 조건, 의미, 행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므로(Strauss & Corbin, 1990), 여성의 입덧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그들에게 놓여진 자연 상황과 그가 처한 맥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근거이론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입덧경험의 대처과정에 초점을 두고 여성이 입덧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된 변인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제자료에서 근거된 입덧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한다

## 연구의 목적

여성의 입덧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입덧에 대한 대처행위의 과정을 파악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입덧 경험을 범주화하여 입덧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
- 입덧에 대한 대처행위와 관련된 구조적 상황, 전략, 결과를 파악한다.
- 여성의 입덧에 대한 대처행위의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입덧경험에 대한 실제이론의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과정

###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 획득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인지하는 이론적 민감성 획득을 중요시하며 이는 연구과정, 독서, 실무경험을 통해 획득되어 진다(Strauss & Corbin, 1990).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의 입덧 관련연구 문헌을 읽었고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과 접하면서 그들의 호소를 듣고자 노력하였다.

###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이론적 표집이란 형성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 이론적인 적합성이 있는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자료수집 초기에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한 임신 1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후에는 범주와 분석적 이야기(story line)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표집 하였다. 여성의 처한 환경에 따라 여성의 입덧에 대한 의미와 대처방법이 다른 점에 근거하여 가정주부, 직장여성, 확대가족, 핵가족, 경제수준, 교육수준, 연령을 고려하여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 12명이 자료수집에 포함되었다.

###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충남지역 D대학 병원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고 있는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과 S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면담자료의 이용에 대해 설명 한 후 협조를 허락한 대상자에 한해 면담을 시도하였다. 대상자와 충분히 친숙해지고 면담이 가능한 건강상태인지 확인하고 연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심층면담시 소요된 시간은 20분-30분으로 면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적한 장소를 선택했고 면담 횟수는 1회에서 3회까지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허용하였다. 연구자 면담시 구조화된 질문을 피함으로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참여자가 자유로이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공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내용은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으며 면담내용이 미비한 경우 전화면담을 추가로 사용하였고 녹음내용은 면담 후 바로 필사하였다.

대상자와의 면담시 면담자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가진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현재 입덧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 입덧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어떨 때 입덧이 더 심해지나요?
- 입덧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 입덧을 해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입덧 경험 후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0)의 분석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3차례에 걸쳐 자료의 개념화, 범주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자료의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를 행하였다.

둘째,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및 과정분석으로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련성을 지어 paradigm molel을 통해 범주간 관계를 연결시켰다.

셋째,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관계를 진술하고 입덧경험의 인과적상황, 현상, 맥락, 중재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과정(process)으로 나타낸 이론적도해(diagram)를 제시하였다.

1차 면담시 자료는 개념의 범주화과정으로 분석하였고 패러다임 모델이 어느 정도 파악 된 후의 2차, 3차 면담은 범주화의 타당성을 대상자로부터 재확인하고 기존 범주와 새로운 면담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근거이론 방법론에서의 연구의 타당도는 면담환경의 친숙함, 계속적인 자료의 비교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론적 민감성을 획득하기 위해 장기간의 문헌고찰 과정을 거쳤고 참여자의 진실왜곡, 감춤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신뢰감을 형성하는 관계유지 기간을 충분히 가졌으며 여러번 반복적으로 면담하여 깊고 풍부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자료분석 시 수집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해하는 전문인과의 합의를 통해 분석했으며 결과를 이차자료인 문헌을 통해 계속적으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구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대학 병원 외래에서 산전진찰을 받는 여성 7명, 보건소를 이용하는 여성 5명이 포함되었다. 전업주부 5명, 직장여성 5명, 가정부업 2명이 포함되었고 핵가족 9명, 확대가족 3명이 포함되었다. 대상자 모두 임신 1기였으며 20대가 8명, 30대가 4명이었다. 직업은 고졸 6명, 전문대 졸업자 3명, 대졸3명이었고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7명이었다.

### 근거자료의 분석결과

참여자	연령	직업	학력	거주 형태	종교
1	27	전업주부	고졸	핵가족	기독교
2	29	가정 부업	고졸	확대가족	불교
3	31	전업주부	대졸	핵가족	무교
4	32	사무직	대졸	핵가족	불교
5	25	교직	대졸	확대가족	천주교
6	24	사무직	고졸	핵가족	무교
7	26	가정부업	전문대 졸	확대가족	기독교
8	26	전업주부	전문대 졸	핵가족	무교
9	29	전업주부	고졸	핵가족	기독교
10	30	전업주부	고졸	핵가족	무교
11	31	보험 설계사	전문대 졸	핵가족	불교
12	34	외판원	고졸	핵가족	무교

여성의 입덧경험에 대한 연구결과 반복되는 개념을 제외한 총9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는 하위범주 22개, 상위범주13개로 범주화되었다<표 1>. 이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한 부호화(axial coding)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결과제시

근거 이론적 연구에서 개발되어진 범주들은 현상을 일으키고 진행시키는 사례, 즉 인과적 상황, 그 현상의 중심이 되는 중심적인 관념이나 사건인 현상, 현상을 다루고 수행하기 위한 선택적 작용, 상호작용적 전략이 수행되는 맥락, 주어진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상황인 중재상황, 현상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작용/상호작용적 전략,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일련의 관계에서 연결이 된다 (Strauss & Corbin,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패러다임 모델에 따라 제시하고자 하며 감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 자료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 • 인과적 상황(causal condition)

여성의 입덧을 일으키고 진행시키는 사례는 본 연구에서 <냄새자극>, <공복>으로 파악되었다.

#### <냄새자극>

여성은 불쾌한 냄새를 맡을 때와 음식 냄새를 맡을 때 입덧이 시작됨을 표현하였는데 입덧을 유발하는 냄새와 음식의 종류는 비 임신시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속 사용하던 화장품 냄새나 익숙한 음식 냄새가 임신시에는 입덧을 유발하였다.

“뽕새 할 때의 피곤냄새가 역해지고..., 향이 없는 화장품인데도 냄새가 그렇게 싫고..., 고기 냄새는 너무 싫어서..., 제이 러운게 냉장고 냄새, 방냄새, 라면 냄새..., 방문을 닫은 후에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

<표 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패러다임	범 주	하위 범주	개 념
인과적 상황	냄새 자극	불쾌한 냄새 음식냄새	화장품 냄새, 냉장고 냄새, 비누냄새, 치약냄새 라면냄새, 담배냄새, 밥냄새
	공복	음식을 먹지 않음	아침에 심함, 속이빔, 굶
중심현상	신체기능의 악화	위장장애	속이 뒤집어짐, 소화장애, 속이 쓰림, 속이 울렁거림, 손가락으로 후벼파는 느낌, 구토
	심리적 불안정	질병증상 무력감 절망감 서운함	갑기를 자주 앓음, 체중감소, 두통 늘어짐, 몸이 나른함, 지친 느낌, 귀찮음, 가라앉는 느낌, 힘이 없음 지옥 같은 느낌, 살고 싶지 않음, 죽고싶음, 섬뜩한 마음, 짜증, 신경질
맥락	환경의 변화 과로	환경의 변화 괴곤함	직장을 옮김, 찬바람을 쐬, 공부를 시작함, 이사를 함 몸이 힘들, 가사노동, 무리한 외출, 괴곤을 느낌, 과도한 활동
중재상황	가족지지	친정의 도움을 받음 배우자지지	음식준비 도움, 위로, 친절과 함께 거주함 남편사랑을 확인, 남편과 함께 식사, 남편의 돌봄, 함께 걱정해줌, 남편과 함께 거주함.
전략	의료에 의존함 음식 섭취의 변화	의료기관 이용 선호음식의 섭취	수액치료, 비타민 복용 외식함, 부드러운 음식섭취, 비 자극성 음식섭취, 찬음식을 섭취, 매운 음식을 섭취, 야채를 많이 먹음, 과일섭취
	휴식	공복을 피함 수분섭취 증가 가사노동에서 벗어남	억지로 먹음, 수시로 먹음, 미리 먹음 쥬스, 매실즙, 인삼 달인물, 생수, 야쿠르트, 우유 남편이 집안일을 함, 일을 안함, 친절으로 감
	냄새를 제거함	수면을 취함 불쾌한 냄새의 원인제거	잠을 잠 환기, 화장을 하지 않음, 냄새없는 화장품 사용, 비누사용을 안함, 탈취제의 사용
	관심전환	잇으려 애씀	잇으려고 함, 생각을 하지 않음, 좋게 생각함, 일상생활을 열심히 함, 웃긴 드라마를 봄, 바쁘게 함
	양가감정	후회	임신으로 고생한다는 느낌, 두려움, 불안, 무려움, 후회,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음, 임신을 중단하고 싶음
결과		기쁨	기쁜 마음,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 분만을 기다림,

도 냄새 때문에..”

#### <공복>

대상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입덧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바빠서 끼니를 못 챙겼을 때, 공복시에 가장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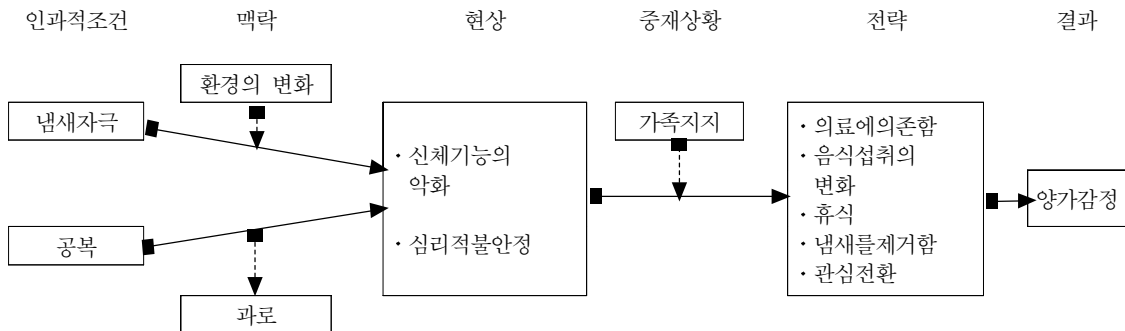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속이 비면 딱 후벼내는 느낌이 들고 더 메스꺼워지고..., 식사시작을 놓치면 속이 더 울렁거리고 참을 수가 없어서...”

#### • 현상(phenomena)

여성의 입덧 경험의 중심적인 관념(idea)이나 사건(event happening)으로 본 연구에서 <신체기능의 변화>, <심리적 불안정>개념이 파악되었다.

#### <신체기능의 악화>

입덧으로 여성은 신체기능의 악화를 경험하였는데 메스꺼움과 구토로 특징 지워지는 위장장애와 저항력 약화, 두통, 체중감소를 경험하였다.



<그림 1>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여성의 입덧경험

“속이 웅덩거리고 뒤집어 지는 느낌..., 속이 텅게 쓰러지는 느낌..., 손톱으로 딱 긁는 느낌..., 밥 먹으면 바로 토하니까..., 차렷머를 24시간 하는 느낌..., 감기가 자주 걸려서 고생하고..., 음식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주 아픈 거예요..., 역한 것이 뭔가 치켜어 오르다가 탁 뱉는 느낌이 든다가 갑자기 토하게 돼요..., 무엇을 먹어도 생물이 오르더 라고요..., 계속 신트님이 나오 신물이 넘어오는게..”

#### <심리적 불안정>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은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였는데 그 하위범주로 ‘무력감’, ‘절망감’, ‘서운함’이 범주화되었다.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무력감을 강하게 경험하였고 임신으로 인한 입덧에 대해 심한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부적절한 경우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맛사가 귀찮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가라앉는 느낌..., 맨날 늘어지니까 삶에 생기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또 머속거릴 텐데 하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고..., 지옥이었죠, 딱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기를 위해서라도 뭘 먹으라고 하니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어요..., 짜증만 들고 신경질만 더 부리는 거예요..., 나 자식이니까 당연히 니가 입덧하는 거지 누가 하냐고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안 도와주니 서운해요....”

#### • 맥락(context)

여성에게 입덧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 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지는 일련의 조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입덧을 발생시키는 맥락으로 <환경의 변화>, <과로>개념이 파악되어졌다. 임신 시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진학, 이사와 같은 환경변화와 육체적 피곤함은 입덧의 발생과 관련되었다.

#### <환경의 변화>

“임신초기에 전세가 딸렸어 이사하게 되어 신경을 쓰니...,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책을 보니까 더 매스꺼워지고..., 찬바람을 쏘이니 더 헛구역질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 <과로>

“영어, 수학 중학생 과목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힘들던데 심해지더라구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토하고..., 일하다가 힘들면 더 심해지고... 퇴근길에 지친 몸을 끌고 버스를 타면...”

#### • 중재상황(intervening condition)

입덧에 대처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으로 대처를 방해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입덧에 대한 대처를 돕는 요소로 <가족지지>가 파악

되었다.

#### <가족지지>

여성은 입덧 시 친정식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거나 심리적 지지를 받았으며 친정이 멀거나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경우 심한 입덧을 호소하였다. 남편의 지지 또한 대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편이 함께 위로해주고 선호하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행위로 인해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경험을 가졌다.

“친정 언마가 자주 한 계셨죠,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너무 힘들어 친정에 가서 살았어요..., 언마가 해주는 동치미랑 밥 조금해서 그나마 먹겠더라고요..., 친정언마가 많은 위로가 되죠..”, “남편이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사가지고 들어와요..., 먹고 싶은 것을 사다주면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임신 20주까지는 남편이 밥은 기본으로 하고 빨래, 청소, 장보는 것까지 다했고 시어머니가 별반찬은 다 해다 주셨고요..., 나도 고생하는데 신장도 당연히 고생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안색도 살펴주고, 손도 잡아주요..”

#### • 작용/상호작용적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

여성이 입덧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의료에 의존함>, <음식섭취의 변화>, <휴식>,<냄새를 제거함>, <관심 전환>이 파악되어졌다.

많은 여성이 입덧시 의학적 치료를 추구하기보다는 참는 행위를 나타냈지만 일부 대상자의 경우 수액치료나 건강식품 섭취, 비타민 요법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여성이 입덧에 대처하기 위하여 음식섭취를 변화하는 행위를 나타내었다. 입덧 후 평소와 다른 음식, 비자극성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공복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수분섭취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나타내었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입덧을 완화하고 입덧의 원인이 되는 냄새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입덧을 의식적으로 잊으려는 관심 전환을 시도하였다.

#### <의료에 의존함>

“친정아버지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사라 비타민을 먹었고 임신 기간동안 수액 치료를 4-5회 받았어요..., 홍삼이나 인삼 달인 물을 물처럼 마셨어요..., 노마 에프를 제리처럼 먹었어요..”

#### <음식섭취의 변화>

“집 음식이 싫어서 밖에서 거의 다 외식 했죠, 그때 그때 먹고 싶은 것으로요..., 임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간장에 느끼한 마아가전 비벼서 먹으면 맛있고..., 과일류가 제일 잘 맞아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흰 우유에 부드러운 것 먹으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음식들이 입에 맞으니깐 그것을 먹고..., 매식즙을 항상 마시면서 속을 달래

고... 이쁜음료하고 물만 먹고 살았어.. 속이 빈 때 토하더라도 계속 먹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구요.. 속이 비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크래커를 먹으면서...."

#### <휴식>

"익하다가 힘들면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으면 잠들고 그러면 조금 나아졌어요.., 임신 내내 계속 누워있다 시피하고... 친절으로 가서 죽 누워있으니깐 한겨 냈고..."

#### <냄새를 제거함>

"스킨도 냄새 안나는 것으로 바꾸고, 집에 들어오면 한기부터 하고... 향수도 안 뿌리고 진한 냄새 나는 비누는 버리고... 방문을 닫은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게 하고... 빵이 쪄는 동안 부엌에 나가지 않고..."

#### <관심 전환>

"뭐든 바쁜일을 하면 잊어요.., 전 그냥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재미있는 연속극을 볼 때는 입덧에서 벗어나게 되고... 남편이 웃겨주면 잠시 벗어나는 것 같고..."

#### • 결과(consequence)

입덧에 대한 여성의 대처작용/상호작용적 전략의 결과개념으로 <양가감정>개념이 확인되었다.

여성은 입덧으로 인한 절망감, 불안으로 임신을 후회하며 더 이상 입덧으로 고통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임신에 대한 기쁜마음, 아기를 기다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함께 표현하였다.

#### <양가감정>

"임신이 중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임신 해 가지고 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임신을 해서 기뻐지만 복안 했다가 정말 하루에 열 두번도 기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 이겨내면 예쁜 아이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입덧도 힘든데 애기 낳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요.. 그토록 힘들게 임신치료를 가진 아이니까 소중한데... 아이가 무척 기다려지네요..."

#### ● 자료의 관계진술, 가설적 관계 개요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관계, 맥락, 증세상황, 그리고 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의 속성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도의 영역으로 진술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로 나타낼 수 있다.

임신부에게 냄새자극이 강할수록 입덧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임신부의 공복시간이 길수록 입덧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신부의 환경의 변화는 입덧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

임신부의 과로는 입덧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

임신부의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입덧에 대한 대처정도는 높아진다.

가설적 관계개요(story line)란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로 기술하고 이러한 기술을 분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념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여성은 냄새자극과 공복상태에 놓일 때 입덧을 경험하게 되며 환경의 변화와 과로가 입덧 발생에 관여된다. 여성은 입덧의 중심현상으로 신체기능의 악화,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한다. 여성은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음식섭취를 변화시키고 휴식, 냄새제거, 관심전환을 통하여 입덧에 대처하고자 하며 가족 지지는 대처를 용이하게 한다. 여성은 입덧 경험 후 양가감정을 갖게된다.

## 논 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는 여성의 총체적인 신체적, 심리 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여성이 입덧을 어떻게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는지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입덧완화 전략의 구축은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입덧의 발생과 관련되는 인과적 조건은 '냄새자극', '공복'인 것으로 나타났고 입덧을 발생시키는 맥락으로 '환경의 변화', '과로'가 파악되었는데 이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Hyun과 Park(2000)의 입덧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입덧이 자극되는 경우는 속이 비었을 때 32.9%, 냄새자극 30.3%, 음식준비 23.3%, 감정적 변화가 있을 때 9.8%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불쾌한 냄새와 음식 냄새자극과 공복 상태가 입덧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lorio와 Van Lier(1989)도 속이 빈 경우, 식사, 냄새, 피로가 입덧을 자극하는데 관련됨을 보고하였고, 과로와 수면 부족이 입덧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었다(Hyun & Park, 2000). 본 연구에서 입덧을 자극하는 맥락으로 '환경의 변화'가 파악되었는데 이사, 진학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여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입덧이 더 심해짐을 나타내는데 이는 입덧관련 요소로 스트레스를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O'brien et al., 2002; Strong, 2001). 입덧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로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Henker, 1976)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한 입덧의 결과로 보고한 연구도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입덧과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입덧 경험의 중심 현상으로 '신체기능의 악화', '심리적 불안정'이 파악되었다. '신체기능의 악화' 범주에서는 위장장애가 가장 특징적이었고 질병 관련 증상도 파악되었다. 동서양 모두 입덧의 주요 증상으로 위장장애를 제시하였고

오심, 구토, 구역질을 입덧의 대표증상으로 보았고 개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O'Brien et al., 2002). 한국에서 행해진 입덧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입덧의 주요 증상으로 메스꺼움, 헛구역질, 구토를 제시 한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토 후 속쓰림이나 위장 통증을 경험한 여성도 있었는데 이는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사료된다.

한편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은 입덧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을 나타내었는데 절망감, 서운함, 무력감을 경험하며 하루 중 급격한 정서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성은 입덧과정에서 신체적, 사회적 위축을 동반한 외로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자기 통제력 상실, 무기력한에서의 죄책감을 나타낸다(O'Brien et al., 2002).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은 입덧에서 회복 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과 입덧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그들의 세계에 자신을 고립시키며(O'Brien et al., 2002), 입덧으로 인해 여성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울이 발생되며(Mazzota, Maltepe, Navioz, Magee & Koren, 2000)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Mazzota et al., 1997). 임신 중 해소되지 않는 오심과 지속적인 구토, 메스꺼움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여성의 임신 적응을 방해 할 수 있다(Lenz et al., 1997). 그러므로 입덧은 간호학적 관심 안에서 간과되어져서는 안되며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을 돕는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다.

여성이 입덧에 적응하기 위해 '음식섭취의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공복을 피하거나 비자극성 음식의 섭취, 수분 섭취의 증가 등이 포함되어 참여자의 대부분이 음식 섭취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Hyun & Park(2000)의 입덧 실태 조사 연구에서 식이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된 정도는 75.9%였으며 입덧이 있을 때 시도한 음식은 과일이 34.6%, 탄산음료 14.8%, 마른 탄수화물 13.2%, 맑은 유동액 10.4%, 과일쥬스 7.1%로 보고하였고 기타 입덧시 먹고 싶었던 음식, 자극적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입덧을 완화하기 위해 식이섭취 변화에 많은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한국 여성의 경우 입덧 해결을 위해 특히 식이조절을 시도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조절의 방법으로 과일, 야채 섭취의 증가, 그때 그때 원하는 음식의 섭취를 행하였는데 한국여성은 서양의 마른 탄수화물에 비해 과일섭취가 입덧 완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Hyun & Park(2000)의 연구에서도 마른 탄수화물 보다 과일이 여성의 입덧에 더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Dilorio & Lier(1989)의 연구에서는 크래커를 먹고 식사를 조금씩 먹은 경우에 입덧이 감소된 임부는 47%, 무엇이든지 먹은 경우에 입덧이 감소된 임부는 62%로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 쉬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입덧 시 선호하는 음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며 개인에

따라 독특하나 무엇이든 먹어서 공복을 피하는 것이 입덧을 완화시키는 방법임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삼달인 물을 섭취한 경우도 있었는데 인삼의 효과 연구에서는 인삼을 사용한 실험군의 오심과 구토횟수가 유의하게 감소됨이 보고 된 바가 있다(Fischer-Rasmussen, Kjaer, Dahl & Asping, 1991).

참여자들의 입덧 완화전략으로 '휴식'이 제시되었는데 입덧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음식보다도 쉬는 것(Jenkins, Shelton, 1989)임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일부에서만 입덧 완화를 위해 '의료에 의존함'을 나타내었는데 수액치료나 비타민을 복용하였다. 피리독신을 하루 세 번씩 복용한 임부의 오심과 구토의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Sahakian, Rouse, Sipes, Rose & Niebyl, 1991)되었고 복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한 임부가 오심, 구토, 현훈등이 감소되어(Czeizel et al., 1992) 영양상태의 최적화가 오심, 구토의 감소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태아발달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한 잠재력으로 약물치료를 죄책감을 경험(O'Brien & Naber, 1992)하여 임신부는 약물 복용을 꺼려 할 수 있으며 의료 이용 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캐나다 여성에 비해 미국여성이 의학적 치료를 더 추구하고 생활양식과 음식을 바꾸도록 의료진에게 권고를 받으며 비약물적 치료를 추구한다(Mazzot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는 여성만이 입덧을 완화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를 시도하여 많은 여성이 입덧의 치료는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섭취, 휴식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에 의존해 입덧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냄새를 제거함' 전략은 입덧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냄새를 환경에서 제거하는 전략인데 나쁜 냄새와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피하고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아서 음식 냄새를 피하는 것이 입덧에 도움이 되므로(Jenkins & Shelton, 1989), 입덧시 가사노동을 대체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심전환"은 여성이 입덧을 잊기 위해 시도하는 전략으로 여성이 입덧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지지하며 관심전환을 위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여성의 입덧완화 전략을 강화하는 요소로 '가족지지'가 파악되어졌는데 특히 친정식구와 배우자의 지지가 입덧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는 입덧완화를 위한 간호중재가 가족중심이어야 함을 나타낸다. 입덧이 있는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며(Jenkins & Shelton, 1989) 부부의 결혼만족감, 부부관계, 임신 수용여부가 입덧에 영향을 미친다(Hyun & Park, 2000). 그러므로 입덧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돕고 입덧완화 방법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남편을 포함한 가족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간호중재는 입덧에 대

한 여성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울 수 있다.

여성은 입덧으로 인해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면서도 임신을 거부하는 양가 감정을 나타내었다. 계속되는 입덧에 절망감을 느껴 임신중단을 희망하기도 하였지만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며 출산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임신으로 인한 오심, 구토의 위장관의 변화는 호르몬 변화나 임신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를 나타내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여성은 임신을 확인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임신을 원했던 계획했던 부부일지라도 양가감정을 느낀다(Youngs & Ehrhardt, 1980). 아기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 주거 환경의 문제, 부부관계 등이 영향 받게 되므로 임신을 경험하는 여성은 때로는 분노, 절망감, 슬픔도 느끼지만 기쁨, 황홀함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한다(Youngs & Ehrhardt, 1980).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여성의 입덧 경험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 개인에게 복잡한 요소가 다양하게 관련이 되는 과정이므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입덧 완화방법을 개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여성은 대부분 의학적 치료 보다는 입덧 완화를 위해 음식섭취의 변화를 시도하고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가 개인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리고 가족지지가 입덧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중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별화된 입덧 완화 전략의 구축이 바람직하며 입덧 시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입덧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확립, 심리적 중재를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시 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입덧경험을 파악하여 입덧에 대한 대처과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 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를 행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충남지역 D대학 병원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고 있는 입덧을 경험하는 여성과 S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신부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 졌다. 자료분석 시 수집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질문하며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해하는 전문인과의 합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여성의 입덧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성은 냄새자극과 공복상태에 놓일 때 입덧을 경험하게 되며 환경의 변화와 과로가 입덧 발생에 관여된다. 여성은 입덧의 중심현상으로 신체기능의 악화,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한

다. 여성은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음식섭취를 변화시키고 휴식, 냄새제거, 관심전환을 통하여 입덧에 대처하고자 하며 가족 지지는 대처를 용이하게 한다. 여성은 입덧 경험 후 양가감정을 갖게된다.

여성의 입덧 경험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입덧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도 독특하며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였으며 가족 지지가 입덧 완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의 입덧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는 가족을 중심으로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입덧시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정문제를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중재가 포함된 개별화된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입덧에 대한 대처 전략의 구축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여성의 입덧 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개개인의 입덧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ikins-Murphy, P. (1998). Alternative therapies for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Obstet Gynecol*, 91(1), 149-155.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Prentice-Hall Inc., New Jersey.
- Czeizel, A. E., Dudas, I., Fritz, G., Tecsoi, A., Hanck, A., & Kunovits, G. (1992). The effect of periconceptional multivitamin-mineral supplementation on vertigo, nausea and vomiting in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Arch Gynecol Obstet*, 251(4), 181-185.
- Cowan, M. J. (1996). Hyperemesis Gravidarum : Implications for Home Care and Infusion Therapies. *J Intraven Nurs*, 19(1), 46-58.
- Deuchar, N. (1995). Nausea and vomiting in pregnancy: a review of the problem with particular regard to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Br J Obstet Gynaecol*, 102(1), 6-8.
- Dilorio, C. K., & Van Lier D. J. (1989). *Nausea and vomiting in pregnancy*. In : Funk SG, Tormquist Em. Champagne Tm. Copp La. Weiss RA. eds. Key aspects of Comport: Management of Pain, Fatigue, and Nausea, New York. NY: Springer.
- Fischer-Rasmussen, W., Kjaer, S. K., Dahl, C., & Asping. U. (1991). Ginger treatment of hyperemesis gravidarum. *Eur J Obstet Gynecol Reprod Biol*, 38(1), 19-24.
- Godsey, R. K., & Newman, R. B. (1991). Hyperemesis gravidarum. A comparison of single and multiple admissions. *J Reprod Med*, 36(4), 287-290.



- Henker, I. F. (1976). Psychotherapy as adjunct in treatment of vomiting during pregnancy. *South Med J*, 69, 1585-1587.
- Hsu, C. D., & Witter, F. R. (1993). Fetal sex and severe hyperemesis gravidarum. *Int J Gynaecol Obstet*, 40(1), 63-4.
- Hyun, J. S., & Park, Y. S. (2000). A Survey of Morning Sickness during pregnancy. *Korean J Women Health Nurs*. 6(4), 477-492.
- Jenkins, M. L., & Shelton, B. J. (1989) *The effectiveness of self-care actions in reducing "Morning sickness"* In: Tornquist EM, Champagne MT, Copp LA, Wiese RA, eds. Key aspects of comfort: Management of pain, fatigue and nausea. New York: Springer, 267-272
- Lenz, E., Pugh, L., Milligan, R., Gift, A., & Suppe, F. (1997). The middle-rang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An update. *Adv Nurs Sci*, 19(3), 14-27.
- Mazzotta, P., Magee, A., & Koren, G. (1997). Therapeutic abortions due to severe morning sickness: An acceptable combination. *Can Fam Physician*, 43, 1055-1057.
- Mazzotta, P., Maltepe, Y., Navioz, L., Magee, A., & Koren, G. (2000). Attitudes, management and consequences of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t J Gynaecol Obstet*, no(3), 359-365.
- Mazzotta, P., & Magee, L. (2000). A risk-benefit assessment of pharmacological and non-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Drugs* 59(4), 781-800.
- O'Brien, B., & Newton, N. (1991). Psyche versus soma: Historical evolution of beliefs about nausea. vomiting during pregnancy. *J Psychosom Obstet Gynaecol*, 1291-120.
- O'Brien, B., & Naber, S. (1992). Nausea and vomiting during pregnancy : effects on the quality of women's lives. *Birth*, 19(3), 138-143.
- O'Brien, B., & Zhou, Q. (1995). Variables related to nausea and vomiting during pregnancy. *Birth*, 22(2), 93-100.
- O'Brien, B., Evans, M., & White-McDonald, E. (2002). Isolation from "Being Alive" : Coping with severe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Nurs Res*, 51(5), 302-308.
- Sahakian, V., Rouse, D., Sipes, S., Rose, N., & Niebyl, J. (1991). Vitamin B6 is effective therapy for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Obstet Gynecol*, 78(1), 33-36.
- Strauss, & Corbin. (1990).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ong, T. H. (2001). Alternative Therapies of Morning Sickness. *Altern Med Obstet*, 44(4), 653-660.
- Youngs, D., & Ehrhardt, A. (1980).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 Experience in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NVP) in Woman: Grounded Theory Approach

Kim, Ae-Kyung<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VP process in woman. **Method:** This study is based on grounded theory methodology by Strauss & Corbin. The participant were 12 women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using audiotape recording over a period of five months. The data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by a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which new data were continuously coded in categories and properties according to Strauss and Corbin' methodology. **Result:** NVP is caused by having an empty stomach and irritation of smell. NVP occur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change and overworking. The central incident about NVP in Woman were aggravation of physical condition and irritability of emotional state. Intervening condition that conclude action/interactional strategies of NVP -Coping behavior is related to family support. Action/interactional strategies to NVP-Coping in woman were dependence on medical treatment, change in food intake, rest, removal of smell, conversion in attention.. NVP in woman result in ambivalence.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NVP-coping strategy for woman. There is need to develop family support system and individualized care plan respect to food favorite.

**Key words :** Hyperemesis Gravidaru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Ae-Kyung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San #29, Anseo-dong, Cheonan-si, Chungnam 330-714, Korea

Tel: +82-41-550-3885 E-Mail: aekim@dankook.ac.kr